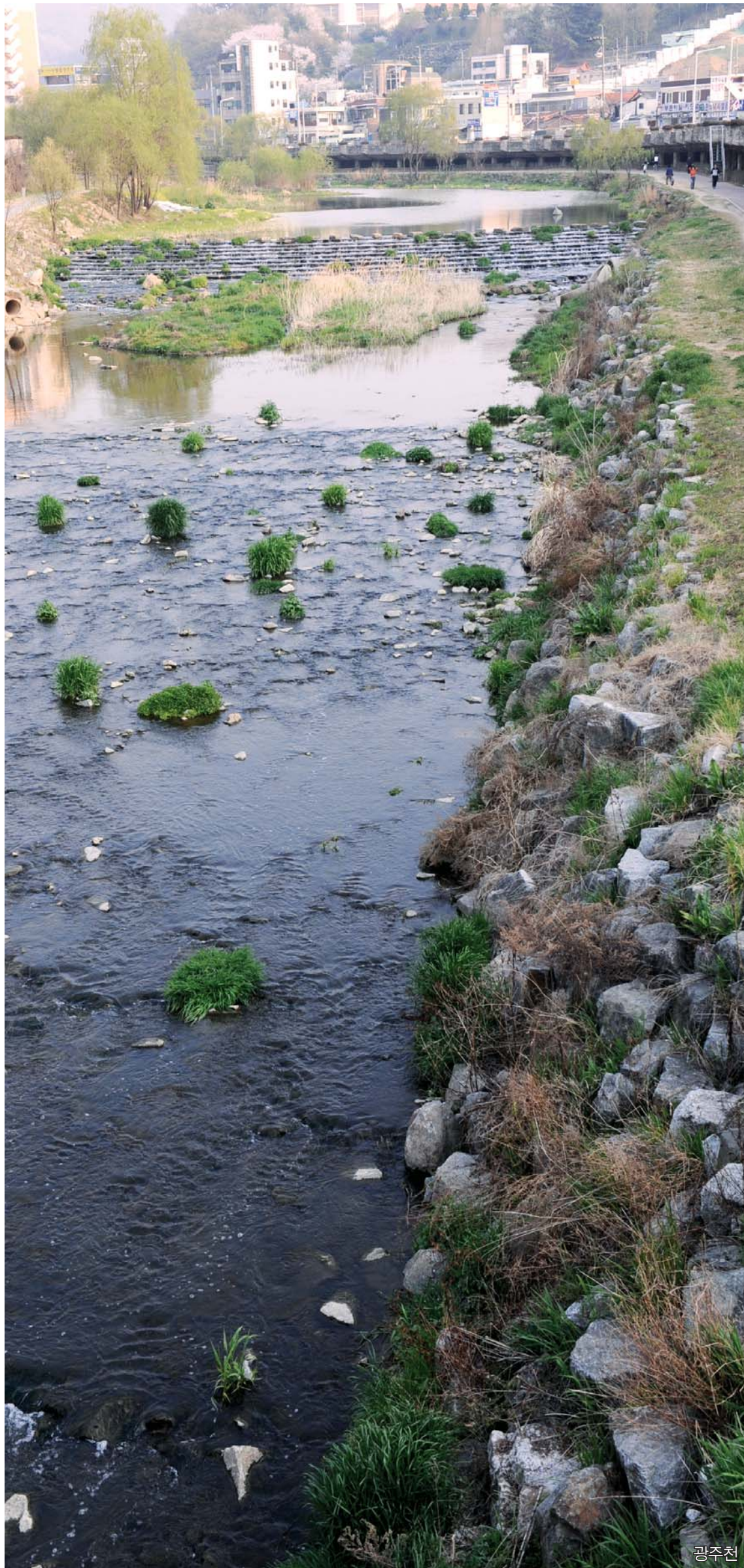


영산강 시대를 열자



168개 지천 오페수·재해 취약 폭·생태계 기본정보도 엉망

<9>지천 현황

예전부터 사람들은 강을 끼고 살아왔다. 남도민들도 지난 2000여년전부터 영산강 350리 물길을 중심으로 생활해왔다. 영산강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며 살아온 삶터다. 자연부락들도 모두 강과 지천을 끼고 만들어졌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이 살아나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강 의존 때문이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과 전문가들은 남도 '대동맥' 영산강에 물을 공급하는 싹싹출인 지천과 셋강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지류 하천의 생태계 복원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 내 일부 하천을 제외한 영산강 지천은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돼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자연 재해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또 지천 생태계나 하천 폭 등 기본 정보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은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가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4일 발간한 '2011 한국하천일람'을 토대로 광주·전남지역 영산강 지천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천 생태계 복구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다.

◇168개에 달하는 영산강의 지천= '2011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영산강 지천은 국가하천 13개, 지방하천 155개, 지역하천 155개, 지방하천으로

는 광주천, 대촌천, 석곡천, 용천, 오례천, 증암천 등 163개가 있다. 이 중 연

광주 9곳·전남 150곳 하천정비계획 없어 환경운동聯 “개발보다 생태계 복원 우선”

장이 10km 이상인 곳은 광주에 광주천을 비롯한 6개, 전남에 지석천 등 27개가 있다. 비교적 연장이 긴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폭, 홍수위, 홍수량, 빈도가 빈 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영산강 지천은 제1·2·3 지류로 분류된다. 영산강 지천 중 영산강의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주천이다. 광주라는 대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광주천의 연장은 12.00km로 그 폭은 19~55m이며, 황룡강은 13.60km에 폭은 180m에 이른다. 또 대촌천(연장 13.79km 폭 8m), 평림천(11.70km, 62m), 석곡천(12.00km, 5m), 평동천(10.41km) 등이 있다. 이들 지천의 일부는 복개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구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남지역 지천으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연장 34.00km, 폭 131m), 고막원천(22.33km, 90m), 함평천(13.91km, 119m) 등이 있다. 지방하천은 대촌천이 26.12km로 가장 길고 삼포강(26.04km), 영암천(24.12km, 19m), 화순천(23.39km), 평림천(19.14km, 21m), 개천(19.03km, 85m)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도나 통계로는 하천으로 돼 있지만 실측조사를 해보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거나 아예 사라진 곳도 있을 것”이

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4대강의 지천 실태조사 및 향후 방침 등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는 영산강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주천의 수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장기계획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광주지역 영산강 지천 37개(국가하천 3개, 지방하천 32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28개, 9개의 지천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수립 상태에 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은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강우, 기상 및 수질과 같은 자연조건 등 하천 현황에 관한 사항,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예정지,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해 종합적인 정비·보전·이용 방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9개 지천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광주지역 마르천 등은 복개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호천 등은 공군비행장에 포함돼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131개 지천 중 절반 이상이 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계획의 목적이 개발이 아닌 생태계 복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 주요 지천

● 광주 (연장 10km이상)			
분류	하천명	연장(km)	하폭(m)
지방하천	광주천	12.00	19~55
	대촌천	13.79	8
	석곡천	12.00	5
	평동천	10.41	-
	평림천	11.70	62
황룡강	13.60	180	
● 전남 (연장 10km이상·지류포함)			
분류	하천명	연장(km)	하폭(m)
국가하천	지석천	34.00	131
	고막원천	22.33	90
	함평천	13.91	119
	용천	10.64	-
	오례천	18.00	6
	증암천	13.95	-
	복암천	12.16	7
	대익천	10.83	28
	개천	19.03	85
	평림천	19.14	21
지방하천	삼계천	10.06	15
	송석천	15.00	47
	송석천	11.28	13
	화천천	10.45	20
	화순천	23.39	-
	동천	10.64	8
	대촌천	26.12	+*
	봉황천	11.41	25
	만평천	16.75	15
	금천	12.40	-
	문평천	15.34	4
	고막원천	12.60	11
함평천	12.93	-	
학교천	11.23	10	
삼포강	26.04	-	
영암천	24.12	19	
혁신천	18.09	38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강과 지천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지금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하천이 환경이 나 생태 등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의 근간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지천마다 역할은 물론 현재의 상태가 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개별조사를 통해 향후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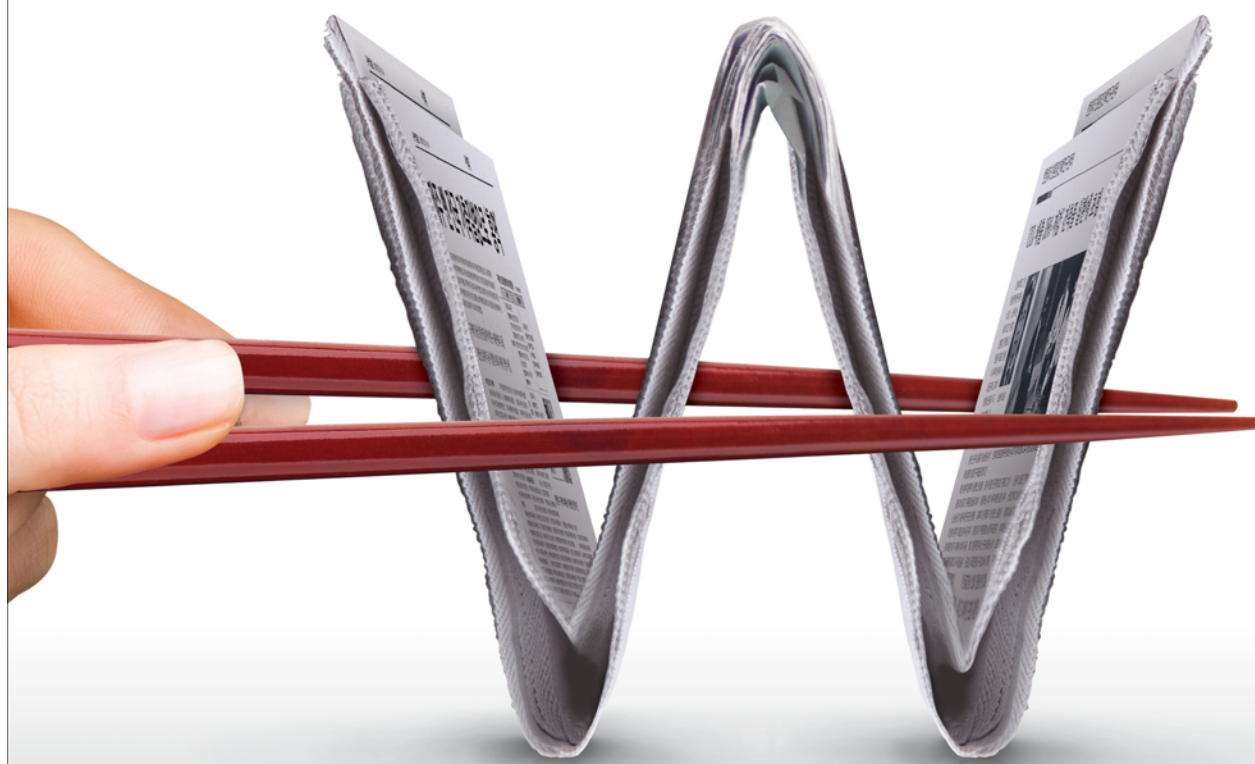
곡성천

보성천

풍영정천

국내최초, 국내최대 종합디지털뉴스 서비스 newskorea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그동안 WON없이 쓰셨나요?

뉴스는 언론사의 소중한 창작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 뉴스도 그림, 음악, 영화, 사진 등 예술작품처럼 기자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합법적 뉴스 이용이 더 밝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듭니다.

정당한 뉴스 사용은, 뉴스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
www.newskorea.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보팀 02-2001-7792

